�� 목차

**1장. 나는 융입니다**

**"내가 걸어온 길이 곧 나 자신이다."**

1.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나요?

2. 정신분석에서 왜 떨어져 나왔나요?

3. 평생 누구와 싸우고 있었나요?

4. 스스로를 분석했나요?

5. 당신의 글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?

**2장. 무의식은 살아 있다**

**"무의식은 나보다 먼저 말합니다."**

6. 무의식이란 무엇인가요?

7. 꿈은 무의식의 언어인가요?

8. 상징은 해석되기 전에 존재하나요?

9. 내면의 음성은 누구의 것인가요?

10. 자율적 복합체란 무엇인가요?

11. 상징은 살아 있는 언어인가요?

**3장. 내면의 반대자**

**"우리는 나 아닌 나와 함께 살아갑니다.“**

12. 아니마 / 아니무스는 성별 개념을 넘을 수 있나요?

13. 그림자는 악인가요, 가능성인가요?

14. 자기(self)는 자아와 무엇이 다른가요?

15. 개성화란 무엇인가요?

16. 상징은 개성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?

**4장. 상징과 신**

**"신은 내 안의 상징을 통해 나를 깨운다.“**

17. 당신에게 신은 어떤 존재였나요?

18. 신은 무의식인가요, 아니면 그 너머인가요?

19. 종교는 심리학과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?

20. 신화는 아직도 살아 있나요?

21. 종교적 체험은 정신병과 어떻게 다른가요?

**5장. 나를 아는 철학**

**"나는 분석하지 않고 살아냈습니다.“**

22. 철학은 심리학과 어떻게 다른가요?

23.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가요?

24. 존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?

25. 상처는 자아의 붕괴인가요, 탄생인가요?

26. 죽음은 끝인가요, 통로인가요?

**6장. 지금, 여기에서**

**"융, 지금 이 세상에 와 있다면...“**

27. 지금 이 시대에도 융이 필요할까요?

28. 당신은 과학지인가요, 신비주의자인가요?

29. 상징은 종교와 철학, 과학 사이에서 어떻게 작용하나요?

30. 자기 자신에게 말 거는 언어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?

31. 나를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?

32. 무의식은 지금도 나를 부르고 있나요?

**�� 질문 이후**

**�� 툭툭 질문들**

**✍ 감응 노트**

�� **조어 사전**

**�� 상징을 다시 부르는 책들**

**�� 이 책은 끝났습니다.**